

재영·다영 '쌍둥이' 없는 흥국생명, 선두 수성 가능할까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인정·사과...소속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
현재 17승6패 리그 1위... '여제' 김연경 마저 충격 헤어나오지 못해

이재영과 이다영이 없는 흥국생명이 선두를 수성할 수 있을까. 흥국생명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10일 구단 소속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중학교 선수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피해자분들께서 어렵게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밝혀주셨다. 피해자분들께서 겪었을 그간의 상처와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며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여론을 감안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코트에 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 선수단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안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흥국생명은 현재 17승 6패(시즌 50)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재영과 김연경을 앞세운 공격력은 리그 최강이었다. '흥벤저스'라 불리며 통합 우승이 당연한 듯 보였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최근 3연패를 당했다. 특히, 가장 최근 경기인 11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으로 완패를 당했다. 팀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고, 선수들의 손발은 맞지 않았다. 공격성공률도 겨우 25%에 불과했다. '여제' 김연경마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위기다. 김연경은 이다영과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한때 이들의 갈등이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으로 인해 김연경의 멘탈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팀워크가 중요한 배구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주전 세터와 레프트

가 없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강소휘, 이소영, 러츠 삼각편대가 버티고 있는 2위 GS칼텍스(15승 9패·승점 45)는 어느덧 흥국생명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GS칼텍스는 시즌 전 컵대회 결승전에서 흥국생명을 꺾은 바 있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7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1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IBK기업은행과 홈경기를 치른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기업은행을 상대로 4승 무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재영과 이다영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지가 관건이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감독은 최근 도로공사전에서 젊은 선수 김다솔과 박혜진 등 백업 선수들을 투입



했지만, 이들은 주전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부진을 겪고 있는 새 외국인 선수 브루나의 각성도 필요하다. 브루나에

서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잦다. 데뷔 후 4경기 공격성공률이 겨우 24.19%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중심으로 연

패 탈출에 나선다. 김연경이 부진할 경우, 흥국생명은 1위 수성이 불가능하다.

뉴스



흥국생명 이재영(왼쪽), 이다영. (사진=흥국생명 제공)

이재영·이다영, 태극마크도 못 단다...무기한 제외

과거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재영과 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이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15일 이재영과 이다영의 징계 내용에 대해 밝혔다. 협회는 실무회의를 거쳐 징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학교 폭력 가

해자들은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전했다.

력 관계인 한국배구연맹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협회는 국

배구협회, 학교 폭력 가해자 제외 정리...배구연맹도 징계 검토
"선수 선발서 제외해야 하니가 임도현·라바리니 감독에도 전달"

조용구 협회 사무처장은 "흥국생명이서 자체 징계도 내리고, 협회와 협

가대표 선발에 있어 학교 폭력 가해자는 무기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

다."고 말했다. 협회는 국가대표 감독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사무처장은 "임도현 감독 뿐 아니라 라바리니 감독에게도 전달할 것이다. 선수 선발에서 제외돼야 하니가 대표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감독과도 신속하게 이 내용을 공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15일 이재영과 이다영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봅슬레이 4인승 팀 원윤종, 세계선수권 최종 9위

3년 연속 대회 톱10 진입

원윤종(36·강원도청)이 조종간을 잡은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톱10에 진입했다. 파울렛 원윤종과 브레이크맨 김진수(26·가톨릭관동대), 이경민(29·강원도청), 정현우(25)로 이뤄진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2021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 남

자 봅슬레이 4인승 경기에서 1~4차 시기 합계 3분37초95의 기록으로 9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2018~2019시즌부터 3년 연속 세계선수권 톱10 진입에 성공했다. 앞서 팀 원윤종은 2018~2019시즌 7위, 2019~2020시즌 8위에 오른 바 있다. 1~2차 시기에서 합계 1분49초40으로 8위를 기록했던 팀 원윤종은 3~4차 시기에 1분48초55를 기록하며 순

위가 한 계단 내려갔다. 파울렛 석영진(강원도청)과 브레이크맨 이선우, 채병도, 김동현이 호흡을 맞춘 팀 석영진은 1~4차 시기 합계 3분40초11로 18위에 올랐다. 대회 우승은 독일의 팀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3분35초02)가 차지했다. 여자 모노봅(봅슬레이 1인승)에 나선 김유란(강원도청)은 1~4차 시기 합계 4분4초04의 기록으로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우승은 미국의 카일리 험프리스(3분59초62)다.



원윤종-김진수-이경민-정현우 팀이 14일(현지시간)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세계선수권대회 봅슬레이 4인승 4차 시기 경기를 펼치고 있다.

백승호, 전복 이적 청신호

"프로 5년 풀 제외"...이적료 등 세부 협상 돌입

프로축구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관심을 받는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출신 미드필더 백승호(24)의 국내 무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북 구단 관계자는 "백승호의 프로 계약이 5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속 구단과 이적료 등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K리그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만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연봉과 이적에 일부 제한을 거는 '로컬 룰'이 있다. 5년 이내에 K리그로 돌아오면 최대 연봉이 3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북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스페인축구협회에 백승호의 로컬 룰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호는 2016년 1월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어 올해 1월 '5년 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북 관계자는 "다름슈타트와 백승호 영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이 최근 인터뷰



에서 백승호를 두고 "전복 스타일"이라고 밝히는 등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K리그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백승호는 2010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해 페달라, 지로나FC(이상 스페인)를 거쳐 2019년 여름부터 다름슈타트에서 뛰고 있다. 출전 시간 확보를 위해 독일 무대에 진출했지만, 이번 시즌 후반기 벤치에 머무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변화를 모색했다. 전북에서 꾸준한 기회를 부여 받는다면 다가올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발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백승호 영입에는 최근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선임된 박지성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현중, ML 진출 첫 관문 스프링캠프서 경쟁력 입증

美언론, 참가 16명 투수 가운데 유일 'Good' 호평



텍사스 레인저스와 스피릿 계약을 맺은 양현중(33)이 본격적인 몸 만들기에 나선다. 양현중은 친정팀 KIA 타이거즈의 휴거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KIA는 지난 14일 "양현중이 텍사스와 계약이 발표된 후 챔피언스필드

에서 훈련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선수단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선수단 훈련이 끝나는 오후 3시 이후부터 훈련하고 싶다고 했다"며 "양현중의 개인 훈련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이저리그 계약이 아닌 스피릿

계약을 맺은 양현중은 컨디션을 조금 일찍 끌어올려야 한다.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 등에서 코칭스태프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KBO리그 최고 투수라는 이름표는 미국 무대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 스프링캠프에서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현중은 KBO리그에서 쌓은 관록, 좌완투수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진은 매우 약한 편이다. 특히, 선발진은 카일 김슨과 마이크 폴티네비치를 제외하면 마땅한 투수가 없다. 텍사스는 일본인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를 영입했지만, 확실한 선발 카드는 아니다. 김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두자릿수 승리를 올렸다. 그러나 단축 시즌(팀당 60경기)인 지난해에는 2승 6패 평균자책점 5.35로 부진했다. 폴티네비치는 2018년

13승 10패 평균자책점 2.85로 커리어 하이로 기록했다. 양현중의 실력에 따라서 충분히 선발진의 한 자리를 노릴 수 있다. 텍사스 지역지 댈러스 모닝뉴스는 지난 14일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투수들을 체크했다. 양현중은 초령 투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참가하는 16명의 투수 가운데 유일하게 'Good(좋음)'을 받았다. 캠프에 참가하는 선수 중 유일한 좌완투수라는 점도 큰 이점이다. 그러나 시간은 양현중의 편이 아니다. 양현중은 현재 취업비자를 신청한 후 대기중이다. 때문에 아직 출국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자 발급이 늦어질 경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미국에 도착한 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야구의 도전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이제 험난한 일정이 양현중을 기다리고 있다. 양현중이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축구 광주, 2021시즌 주장 김원식 선임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2021시즌 신입 주장에 김원식(30)을 선임했다. 광주는 14일 "새 시즌 광주 선수단을 이끌 주장에 김원식을, 부주장에는 여봉훈과 이한도를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새 주장 김원식은 인천 유나이티드, FC서울 등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광주에 합류했다. 김원식은 "주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

아 영광이다. 책임감으로 팀을 위해 더 희생하고 더욱더 단단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 구단은 "김원식이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수단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고 있으며,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